

#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① 대학 위치 각 집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다니기 쉬운 곳에 있다. 지하철역과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버스를 이용하기에 편한 장소에 위치해있다.</p> <p>② 규모 및 시설 Langara College는 평지이고 크지 않은 규모를 갖고 있다. 건물들이 붙어 있어 길을 찾는데 헛갈린다. 하지만, 첫날에 건물의 구조와 위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시설은 매우 깨끗하다.</p> <p>③ 전체적인 분위기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유로워 보이고 밴쿠버는 인종이 매우 다양하여 인종차별이 없었다. 많은 재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등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① 수업내용 및 방법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된다. 매일 일상표현, 캐나다 문화, 사람, 간단한 문법 등에 대해서 배우고 각 부분에서 영어회화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생각을 옆 사람 또는 조별로, 가끔은 교수님과 함께 영어로 대화한다. 외부활동을 할 경우, 조를 짜서 활동지에 적혀있는 것들을 수행한다.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다.</p> <p>② 강사 1명의 외국인 교수님이 전담하여 가르친다. 교수님께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회화시간에 교수님이 함께 대화하기도 한다.</p> <p>③ 과제 및 수업준비</p>

	<p>매번 다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적는 숙제가 있다. 써야 할 양은 적다. 주로 숙제 검사는 다음 날 자신의 것을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이뤄진다.</p> <p>외부활동을 한 경우, 각 활동지를 완성하는 것이 숙제이다. 이것 또한 다음 날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① Activity 종류 및 내용</p> <p>Granville Island, Curling, Museum of Vancouver, Vancouver Aquarium, Capilano Suspension Bridge 등의 외부활동을 했다. 주로 밴쿠버의 유명 관광지이거나 밴쿠버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이다.</p> <p>② Activity 준비물</p> <p>실외의 경우 겨울에는 눈이나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따뜻한 복장이 필요하다. 실내의 경우 따로 필요한 준비물은 없다.</p> <p>특히 Curling은 장갑과 편안한 신발은 필수이다. 아이스링크장이 매우 춥기 때문에 따뜻한 복장이 좋다.</p> <p>③ Activity 추가비용</p> <p>모든 활동에서 추가비용은 없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밴쿠버의 경우 겨울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하다. 파견된 3주 중에서 비가 오지 않은 날이 훨씬 적었다.</p> <p>온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춥다. 눈이 올 때는 비가 올 때보다 더 춥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밴쿠버 사람들은 한국처럼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다. 레스토랑과 일반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는 곳도 많으며 시내의 길거리에는 홈리스들이 많다.</p> <p>시내가 아닌 곳(주로 집만 모여 있는 곳)은 가로등이 있지만 꽤 어둡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나는 3살짜리 아들과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배정받았다. 홈스테이 부모님의 고향은 캐나다 밴쿠버이다.</p>

	<p>나의 방이 온전히 주어졌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내 방에 들어오진 않으셨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아들이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의를 주는 등 프라이버시를 확실히 지켜줬다.</p> <p>홈스테이 규칙은 각 집마다 다르지만 깨끗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행동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p> <p>특별한 점이 있다면 나의 홈스테이의 경우, 아들이 2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2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야 했고, 늦어도 21시 이전에 샤워를 마쳐야 했다.</p>
식사	<p>학교식당 ( ) 외부식당 ( ○ )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주로 홈스테이에서 싸준 음식을 먹거나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등을 먹었다. 홈스테이에선 전날 먹은 저녁 혹은 샌드위치를 싸줬다.</p> <p>저녁은 홈스테이 집에 가서 먹거나 외부 식당을 이용했다. 외부 식당은 한식, 중식, 스시, 커리, 타코, 푸틴, 캐나다의 유명 식당 등으로 다양하다.</p> <p>식사를 밖에서 하게 될 경우 호스트(홈맘)에게 미리 얘기해야한다.</p>
교통	<p> 시내교통 관련</p> <p>지하철(스카이 트레인)과 버스가 잘 돼있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주로 구글맵을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학교에서 지하철, 버스, 배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했다.</p> <p>학교에서 지하철을 타고 짧은 시간 안에 시내로 나갈 수 있고, 각 거리마다 버스가 있어서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다.</p> <p>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아주 짧아서(약 3~4분) 밤낮이 관계없이 매우 자주 온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밤에 배차 간격이 크기 때문에 배차간격을 잘 확인해야 한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90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5,650	출국 전 사전 납부
eTA캐나다 전자여행허가	6,3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450,000	외식비, 생활비
카드	300,000	기념품, 옷, 기타 경비
합계	2,691,950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① 날씨(우산과 상비약, 부츠)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로 가져가야 한다. 나는 추위를 잘 타지만 롱패딩을 입지 않아도 다닐 만 했다. 히트텍이나 레깅스 등의 방한복이 필요하다. 핫팩과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이 추위를 견디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눈이 와서 기온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비가 올 때와 눈이 올 때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 한국에서 상비약(감기약 종류별로)을 꼭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눈이 한 번 오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두꺼운 신발을 꼭 가져가야 한다. 밴쿠버 사람들은 대체로 부츠를 신고 다니는데 나는 부츠가 없어서 레깅스와 양말, 운동화 혹은 양말2개와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② 수하물

우리가 탄 항공기의 경우 수하물로 23kg 짐을 총 2개 부칠 수 있었다. 올 때는 기념품과 새로 산 옷 등으로 짐이 많아졌기 때문에 갈 때 공간을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홈스테이 집은 대체로 작은 주택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캐리어의 크기가 좋다. 나의 경우 방이 3층에 위치해있어서 짐을 직접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③ 유심

나는 현지통화가 가능한 캐나다 유심을 한국에서 사갔다. 한국과의 통화는 카카오톡을 통해 할 수 있어서 현지통화만 가능한 유심을 선택했다. 21일 동안 22GB를 사용하는 유심을 썼는데 데이터량이 충분했다. 22GB중에서 10GB정도 사용했다. 매일 데이터를 키고 영상을 봤음에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 더 적은 양의 유심도 충분했을 것 같다. 캐나다는 데이터 속도는 한국만큼 빠르진 않지만 충분히 쓸 만한 속도였다. 홈스테이 집에는 와이파이기가 있었다.

현지통화 경우 가끔 통신 오류로 전화가 늦게 가거나 안 울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땐 그냥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했다.

포켓와이파이를 쓰는 친구도 있었는데 무겁고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아 답답했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유심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④ 음식

음식의 경우 개인적으로 집밥이 입맛에 맞지 않았다. 집에서 먹을 때 식사량이 확 줄었다. 2주 쯤에는 적응해서 먹을 만 했지만 그래도 많이 먹지는 못했다. 입맛이 까다로운 경우 라면과 햇반, 김 등을 적당히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너무 많이 가져가면 다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가져가야 한다. (다른 친구는 너무 많이 가져가서 다 먹고 오느라 애썼다.)

외부 식당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식당이 있고 한국인이 하는 식당도 많다. 한식이 다른 곳에 비해 특히 비싸지만 한식이 먹고 싶다면 추천한다.

⑤ 환전

환전의 경우 작은 단위의 지폐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동전지갑은 필수 !

캐나다에서 지폐를 사용하면 동전이 정말 많이 생긴다. 나는 동전지갑이 없어서 비닐 봉지에 동전을 넣고 다녔다. 캐나다에 가기 전에 어떤 단위의 화폐가 있는지 알아보고 적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지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밴쿠버라는 작은 도시에 3주간 머물면서 밴쿠버 사람들과 문화를 경험했고 언어의 장벽에도 부딪혀봤다. 3주간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나의 회화실력에 대한 고찰을 했고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다.

캐나다에 가기 전에는 외국인 교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졌었다. 캐나다에서 가장 당황했던 점은 교수님이 아닌 캐나다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였다. 처음에는 가게의 점원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의 말은 너무 빨랐고 뭉개진 발음이어서 당황스러웠다. 교수님이 학생을 위해 또박또박 발음해주는 것을 이것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다. 시험에서의 음성이나 교수님은 일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일상에 익숙해지기 위해 점원과 대화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처음엔 두려워서 망설였지만 조금씩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미드나 외국 영화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 일상의 발음을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발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회화를 하면서 발음 다음으로 어려웠던 점은 단어량의 부족이다. 친구와, 홈스테이의 홈맘과 대화하면서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평소에 말해보지 않은 단어를 말해야 할 때였다. 수업에서도 홈스테이에서도 주로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회화를 할 때 단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암기하고 말해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단기어학연수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체력이 약해진 것이었다. 첫 주에는 적응하지 못한 시차로 인해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눈이 와서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감기에 걸렸다. 체력이 약해지니 수업과 회화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이제는 나의 면역력과 체력을 기르기 위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할 것이고 방학에는 수영 등의 취미생활을 겸한 운동을 늘려야겠다.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는 지나고 보니 매우 짧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빨리 끝나버린 것과 내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현지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는 것에서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컨디션과 건강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의 회화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A photograph of the Gastown Steam Clock in Vancouver, British Columbia. The clock is a tall, ornate structure with a clock face, and steam is rising from its top. It is situated on a street corner in front of a large, multi-story brick building. The ground is wet and reflective, suggesting it has recently rained.	 A photograph of an indoor curling rink. The ice is white with green and purple markings. Several curling stones are visible on the ice, and a few people are standing in the background. The rink is well-lit with overhead lights.
<p>Gastown Steam Clock</p>	<p>Curling</p>
 A photograph of the Vancouver Aquarium. A large brown bear is visible in a pool of water. In the background, there are blue buildings with signs, including one that says "STELLER'S BAY". The scene is outdoors with trees and a clear sky.	 A photograph of the Capilano Suspension Bridge. The bridge is a long, narrow wooden structure that spans across a deep canyon. The surrounding area is filled with lush green trees and vegetation. The bridge is supported by several tall wooden pillars.
<p>Vancouver Aquarium</p>	<p>Capilano Suspension Bridge</p>
 A photograph of a meal set on a table. The meal includes a sandwich, a bowl of soup, a carton of SunUppe milk, a small container of yogurt, a bowl of fruit, and a small container of sauce. The table is covered with a light-colored cloth.	 A photograph of two bowls of poutine. The poutine consists of french fries topped with a thick, brown gravy and melted cheese. Two red cans of Coca-Cola are visible in the background. The bowls are on a black tray.
<p>Homestay Lunch</p>	<p>Poutine</p>